

吉益東洞의 저술에 나타난 結實而拘攣에 대한 考察  
-吉益東洞의 《藥徵》을 중심으로-

김동진 · 김장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교실

*Abstract*

**A Study on Caking Muscular Contraction(結實而拘攣) Based on  
the Research of Yakucho (藥徵)**

**Kim Dong Jin, Kim Jang Hyun**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Paeonia lactiflora* Pall(芍藥) is known for curing caking muscular contraction(結實而拘攣) according to Yakucho(藥徵) published by Yoshimasu Todo(吉益東洞), but the descriptions of caking muscular contraction(結實而拘攣) are not fully provided.

**Methods**

In order to further investigate and review the exact meaning of caking muscular contraction(結實而拘攣), present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basis of researches of Yoshimasu Todo's literatures, focusing on Yakucho.

**Results**

As a result of wide range of investigation, it is concluded that caking muscular contraction(結實而拘攣) indicates an abnormal muscular contraction of rectus abdominis.

**Conclusions**

This study will provide helpful clinic information to doctors who will apply medical treatment specified in Yoshimasu Todo's Yakucho(藥徵) to patients in the future.

**Key words** : Caking muscular contraction(結實而拘攣) , Yakucho, Yoshimasu Todo

## I. 緒 論

吉益東洞은 日本의 醫學을 中國의 醫學으로부터 탈피시켜 일본류의 醫學을 완성시킨 사람으로<sup>1)</sup> 기존의 陰陽五行과 經絡 및 運氣학설을 배척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말하고 행하였다고 한다<sup>2)</sup>. 吉益東洞이 저술한 《醫斷》의 腹候 편을 보면 “腹은 生命의 根本이므로 모든 病은 腹에 뿌리를 둔다. 病을 診察할 때에는 반드시 그 腹을 살피고 外證을 그 다음으로 살피라<sup>3)</sup>.”라고 하여 腹診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大塚敬節은 여러 글에서 吉益東洞이 日本의 腹診을 확립시킨 사람이라 하였고<sup>1)</sup>, 吉益東洞이 脈診을 버리고 腹診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日本에 독자적인 腹診法 발달이 촉진되었다고<sup>4)</sup> 하였다.

吉益東洞의 주요저술 목록에는 《醫斷》, 《方極》, 《建殊錄》, 《類聚方》, 《醫事惑門》, 《東洞先生遺稿》, 《藥徵》이 있다. 이 중 《藥徵》은 吉益東洞의 가장 대표적인 著述로서 종래의 本草書와 비교하여 내용과 형식에서 혁신적인 著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의 日本漢方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5)</sup>.

《藥徵》<sup>6)</sup>에 언급된 53종의 藥物은 크게 腹證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藥物과 外證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藥物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芍藥은 結實而拘攣을 主治한다고 하였고 腹痛, 頭痛, 身體不仁, 疼痛, 腹滿, 咳逆, 下利, 腫膿을 旁治한다고 하였다.

본 研究에서는 吉益東洞이 바라본 結實而拘攣의 의미와 結實而拘攣을 통한 구체적인 처방운용을 살펴서 結實而拘攣이 腹證과 外證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내고, 임상에서 芍藥을 적용하는데 있어 명확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藥徵》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나오는 藥物 중 53종의 藥物을 主治, 旁治, 考徵, 互考, 辨誤, 品考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主治는 藥量의 多少를 살펴서 알아내었고, 旁治는 病의 所在를 보고 찾아내었고, 考徵에서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살펴서 증거가 되는 문장들을 뽑아 主治를 증명했고, 互考에서는 處方에 증거가 되는 문장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없는 경우에 다른 자료를 모아서 비교 고찰하였고, 辨誤는 예부터 지금까지 藥의 효능이 잘못된 경우에 古訓을 인용하여 분별하였고, 品考에서는 해당 毒品에 대한 眞僞를 분별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을 《藥徵》이라 이름 짓는다고 《藥徵》 서문에 개괄적 설명을 하고 있다.

本論에서는 먼저 結實而拘攣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 후, 吉益東洞의 저술 목록 중에 《建殊錄》, 《方極》, 《類聚方》, 《藥徵》에서 結實而拘攣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지 조사하였고, 저술 연대에 따른 用語 사용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藥徵》 芍藥部 考徵에서는 藥量이 가장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18개의 處方이 열거되어 있었고, 해당 처방에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증거가 있는 경우 관련 條文을 인용하였고,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증이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考徵에 인용된 條文은 해당 藥物의 主治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런 이유로 考徵에 인용된 處方에 대하여 互考 및 辨誤와 《類聚方》에 언급된 爲則按이하 부분과 《方極》, 《類聚方議》, 《方機》, 《類聚方廣義解說》 《吉益東洞大全集》을 참고하여 해당 條文의 의미를 파악하여 結實而拘攣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藥徵》과 《長沙腹診考》, 《腹診考》의 분석을 통해 結實而拘攣과 腹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III. 本 論

#### 1. 結實而拘攣의 의미

먼저 結實而拘攣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吉益東洞의 저작 중 직접 저작한 《方極》(1764), 《類聚方》(1765), 《藥徵》(1785), 《醫事惑門》(1800) 및 吉益東洞의 문인이 저술하고 吉益東洞이 鑑定했다고 하는 《醫斷》(1754)과 《建殊錄》(1763)에서 芍藥이 主治하는 結實而拘攣과 연관된 용어의 변화를 살펴서 吉益東洞이 바라본 結實而拘攣의 의미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結實而拘攣과 관련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結”자는 《現代中韓辭典》에서는 “(하나로) 엉기다, 凝結하다.”, “맺다, 결합하다, 결성하다.”<sup>7)</sup>의 뜻이 있었고, 《辭源》에서는 “聚合, 凝聚”<sup>8)</sup>의 뜻이 있었으며, 《漢韓大字典》에서는 “엉김, 고체가 됨”<sup>9)</sup>의 뜻이 있었다. 實자의 경우엔, 《現代中韓辭典》에서는 “충실하다, 충만하다, 가득하다”<sup>7)</sup>의 뜻이 있었고, 《辭源》에서는 “結實, 充滿”<sup>8)</sup>의 뜻이 있었으며, 《漢韓大字典》에서는 “찰 실, 채울 실”<sup>9)</sup>이라고 하였다. 結實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現代中韓辭典》에서는 “굳다, 단단하다, 견실하다, 충실하다”<sup>7)</sup>의 뜻이 있었고, 《漢韓大字典》에서는 “튼튼함, 견실함”<sup>9)</sup>의 뜻이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結實은 “무언가 가득 차고 엉겨서 단단하거나 굳어진 상태”로 이해할 수 있었다. “拘”자의 경우, 《現代中韓辭典》에는 “구속받다, 얽매이다”<sup>7)</sup>의 뜻이 있었고, 《辭源》에서는 “曲, 痙攣, 不能

伸直”<sup>8)</sup>의 뜻이 있었으며, 《漢韓大字典》에서는 “잡을 구, 굽을 구”<sup>9)</sup>라고 하였다. “攣”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現代中韓辭典》에는 “(손발이) 오그라들다, 꼬부라지다, 경련을 일으키다.”<sup>7)</sup>의 뜻이 있었고, 《辭源》에서는 “卷曲而不能伸(구부러져서 펼 수 없다.), 抽搐(실룩거리다, 경련을 일으키다, 경련하다, 신경 경련)”<sup>8)</sup>의 뜻이 있었으며, 《漢韓大字典》에서는 “걸릴 련, 오그라질 련”<sup>9)</sup>이라고 하였다. “拘攣”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現代中韓辭典》에는 “경련이 나다, 쥐가 나다”<sup>7)</sup>의 뜻이 있었고, 《辭源》에서는 “痙攣. 肌肉神經性 收搐”<sup>8)</sup>의 뜻이 있었으며, 이를 종합해보면 拘攣은 “경련이나 쥐가 나서 구부러지고 伸展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해할 수 있었다. 結實과 拘攣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結實而拘攣이란 “무언가 가득 차고 엉겨서 단단하게 굳어져있으면서 경련이나 쥐가 나서 구부러지고 신전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治驗例를 모아놓은 《建殊錄》<sup>10)</sup>에서는 結實과 拘攣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은 없었으며, 拘의 경우 脇下拘滿, 兩脇拘急의 표현이 있었으나, 處方 중 芍藥이 없으므로, 芍藥의 結實而拘攣과의 관련은 배제하였다. 攣의 경우, 腹皮攣急, 腰脚攣急, 腰背攣痛, 腹中攣急, 腰攣急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중 腹皮攣急이 3회 사용되었고, 腰脚攣急이 1회, 腰背攣痛이 1회, 腹中攣急이 1회, 腰攣急이 1회, 각각 사용되었으며 腰脚攣急을 제외하면 처방 중에 모두 芍藥이 配伍되어 있었다.

임상에서 실제적인 處方の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方極》<sup>11)</sup>에서는 結實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拘攣에 대해서는 拘攣, 腹拘攣甚, 不拘攣, 或拘攣, 腹滿拘攣이라 하여 《方極》條文中에서 직접 芍藥의 拘攣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拘攣이라

는 표현 외에 腹皮拘急, 少腹拘急, 腹拘急, 身體攣痛, 胸腹拘滿, 若拘痛이라 하여 芍藥의 拘攣과 관련된 표현들이 《方極》 條文 곳곳에 서술되어 있었다.

傷寒論의 處方과 證이 여러 편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處方 別로 나열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고, 각 處方의 條文을 취사선택한 《類聚方》<sup>12)</sup>에서는 條文의 마지막에 爲則按으로 시작되는 吉益東洞의 설명이 있다. 이 《類聚方》의 爲則按에서는 芍藥의 結實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았으며, 拘攣과 拘急이 혼재되어 표현되어 있었고, 排膿散의 爲則按에서는 拘滿의 표현이 있었고, 黃芩湯의 爲則按에서는 腹強急의 표현이 있었으며, 甘遂半夏湯의 爲則按에서는 攣急의 언급이 있었다. 苓桂甘棗湯의 경우 처방 중 芍藥이 없음에도 爲則按에 腹拘急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藥徵》<sup>6)</sup> 大棗部에서 “大棗甘草芍藥. 其證候大同而小異”라 하여 간략하게나마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었다.

《藥徵》<sup>6)</sup>을 살펴보면 芍藥의 結實而拘攣 외에 人蔘과 枳實에서도 結實을 다루고 있었으며 大黃은 主通利結毒이라 하여 結毒을 通利시킨다고 하였는데, 大黃이 다스리는 結毒은 結實之毒을 포함하는 上位概念이므로, 大黃의 結毒도 結實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저서와는 달리 《藥徵》<sup>6)</sup>에서는 芍藥部 문두에 “芍藥은 結實而拘攣을 主治한다.”라고 하여 처음부터 結實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었고, 結實而拘攣이라는 표현이 3회 사용되었다.

또한 《藥徵》<sup>6)</sup>에서는 拘攣과 拘急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芍藥部 主治와 互考 및 人蔘部 互考에서는 拘攣이라 하였고, 芍藥部 考徵과 互考에서는 拘急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吉益東洞은 《藥徵》에서 芍藥이 主治하는 結實而拘攣과 관련하여 大棗, 甘草와의 감별

을 自得할 것을 언급하였다. 《藥徵》 大棗部를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張仲景이 大棗, 甘草, 芍藥을 사용하는 그 證候가 서로 많이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방법을 알려면 스스로 터득하는 수밖에 없다.”<sup>6)</sup>라고 하여 大棗와 甘草와 芍藥의 쓰임이 서로 비슷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였다. 芍藥이 結實而拘攣을 主治한다고 하면서도 拘急이나 攣急 등의 표현이 혼용되는 이유 역시도 이러한 大棗, 甘草, 芍藥의 大同小異함에 그 연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근거로 살펴보면 吉益東洞은 《藥徵》의 芍藥部에서 “芍藥은 結實而拘攣을 主治한다.”라고 하였지만, 처음부터 芍藥의 主治를 結實而拘攣으로 확정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다른 저서에서는 芍藥과 관련된 結實의 용어를 찾을 수 없었으며, 《藥徵》에서만 結實而拘攣이라 하여 芍藥과 結實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있었다. 拘攣과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면, 《建殊錄》에서는 攣急의 표현이 5회, 攣痛의 표현이 1회 사용되었고, 拘攣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拘와 관련된 脇下拘滿, 兩脇拘急의 표현도 芍藥과는 無關한 처방의 證이었다. 저술 연도가 가장 앞선 《方極》에서는 芍藥의 拘攣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고, 拘攣과 관련된 拘急, 攣痛, 拘滿, 拘痛의 표현이 혼용되었다. 《方極》과 《建殊錄》을 비교하였을 때, 《方極》에서는 拘攣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拘攣에 대한 언급이 없는 《建殊錄》의 저술시기가 《方極》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다. 《類聚方》에서는 拘攣이 1회, 拘急이 4회, 強急이 1회, 拘滿이 1회 사용되었으며, 역시 拘攣, 拘急, 強急, 拘滿의 용어가 혼용되었다. 《藥徵》의 경우 芍藥部 문두에 분명히 “芍藥은 結實而拘攣을 主治한다.”라고 하였지

만, 실제 《藥徵》의 芍藥部에서는 拘攣과 拘急의 표현이 모두 사용되었고, 다른 저서와는 달리 結實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었다. 《藥徵》의 主治 旁治를 중심으로 拘急에 대해 살펴보면, 拘急의 급자는 《藥徵》 芍藥部의 主治 旁治에서는 언급이 없었고, 甘草部와 大棗部에서 각각 “甘草는 急迫을 主治한다.” “大棗는 攣引強急을 主治한다.”라고 하여 급자를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藥徵》 大棗部의 “大棗와 甘草와 芍藥은 證候가 서로 많이 비슷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을 연계시켜보면, 吉益東洞은 芍藥 단독의 主治는 拘攣이라 하였고, 芍藥과 甘草, 또는 芍藥과 大棗, 또는 芍藥과 甘草와 大棗가 공통으로 만들어내는 主治는 拘急이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吉益東洞大全集》의 《長沙腹診考》<sup>13)</sup>를 보면 “《東洞遺書》에 拘急은 拘攣인 것이고, 攣은 引하고 당기며, 急은 急迫이다.”라고 하였다.

“《東洞遺書》に拘急は拘攣のこと、攣は引きつり、急は急迫なり<sup>13)</sup>.”

결국 拘急이라는 것은 拘攣인 것이고, 急이라는 것은 急迫인 것이며, 吉益東洞에게 있어 拘急은 拘攣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 2. 《藥徵》 芍藥部 考徵에 언급된 각 처방에 서의 結實而拘攣

### 1) 桂枝加芍藥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腹滿時痛’을 結實而拘攣의 증거로 인용했다. 《類聚方》에서는 이 처방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고, 爲則按으로 시작되는 吉益東洞의 설명이 있었다.

“[本太陽病.] 醫反下之. 因爾腹滿時痛者. [屬太陰也.] 桂枝加芍藥湯主之. 大實痛者. 桂枝加大黃湯主之<sup>12)</sup>.”

“爲則按. 腹滿時痛者. 卽拘急. 而痛也. 是以芍藥爲主爾<sup>12)</sup>.”

爲則按을 보면 吉益東洞은 腹滿時痛을 拘急而痛이라 하였으며 이는 芍藥이 主하는 것이라 하였다. 拘急은 拘攣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腹滿時痛은 芍藥이 主治하는 結實而拘攣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方極》에서는 桂枝加芍藥湯에 대해 “桂枝湯證이 있으면서 腹拘攣이 심한 경우를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여 확실하게 拘攣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고, 腹拘攣이라 하여 拘攣의 證이 腹部에 있음을 서술하였다.

《類聚方》 條文의 腹滿時痛에 대하여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腹痛及拘攣劇者라 하여 腹痛과 拘攣을 관련짓고 있었다.

《類聚方議》<sup>14)</sup>를 저술한 村井大年은 《方極》의 腹拘攣에 대해 拘攣이 어찌 腹에만 있겠느냐며 《方極》의 條文을 桂枝湯證而拘攣劇者로 바꾸어야 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吉益東洞은 《藥徵》에서 芍藥의 主治를 拘攣이라 하지 않고 結實而拘攣이라 하였다. 村井大年은 吉益東洞의 結實而拘攣에 대한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拘攣과 結實而拘攣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2) 少建中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少建中湯의 ‘腹中急痛’을 結實而拘攣의 증거로 인용하였다. 《類聚方》에서는 이 처방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고, 爲則按으로 시작되는 吉益東洞의 설명이 있었다.

“[傷寒. 陽脈澁. 陰脈弦.] 法當腹中急痛者. 先與小[建中]湯. 不差者. 與小柴胡湯主之<sup>12)</sup>.”

“爲則按. 當有腹中拘急證. 其方類芍藥甘草湯也<sup>12)</sup>.”

《類聚方》條文에서는 腹中急痛이라 하였고, 吉益東洞은 爲則按에서 “당연히 腹中拘急證이 있으며 少建中湯은 芍藥甘草湯과 유사하다”라고 서술하였다. 拘急은 拘攣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腹中急痛은 芍藥이 主治하는 結實而拘攣의 증거가 될 수 있다.

《方極》에서는 少建中湯에 대해 “裏急, 腹皮拘急 및 急痛을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여 少建中湯은 腹中拘急뿐만 아니라 腹皮拘急도 다스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보면 吉益東洞의 爲則按과 《方極》條文을 통해 少建中湯에서의 結實而拘攣이 腹部에서 拘急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太陽傷寒 柴胡證과 心中煩悸證, 虛勞證 및 여러 方證에 대해 外證만을 통해 隨證治之하여 少建中湯으로 다스리는 것은 仲景의 隨證治之의 법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少建中湯은 오직 桂枝加芍藥湯證에 腹中 裏拘急하면서 急痛하는 자를 치료하는 것이라 하여 腹證에 따른 隨證治之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3) 桂枝加大黃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는 桂枝加大黃湯의 ‘大實痛’을 芍藥의 結實而拘攣과 관련된 증거로 인용하였다. 《類聚方》에서는 이 處方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다.

“本太陽病. 醫反下之. 因爾腹滿時痛者. 屬太陰也. 桂枝加芍藥湯主之. 大實痛者. 桂枝加大黃湯主之<sup>12)</sup>.”

《類聚方》條文을 보면 腹滿時痛은 桂枝加芍藥湯이 主하고, 腹滿時痛보다 大實痛한 경우엔 桂枝加大黃湯을 主한다고 하였다. 《類聚方》의 桂枝加芍藥湯條文에 있는 吉益東洞의 爲則按에서는 腹滿時痛을 拘急而痛이라

하였고, 《方極》에서는 腹拘攣甚者라 하였으므로 桂枝加大黃湯이 主하는 結實而拘攣은 腹部의 拘急이나 拘攣의 정도가 桂枝加芍藥湯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桂枝加大黃湯은 桂枝加芍藥湯에 大黃 3兩이 가해진 處方이므로 桂枝加芍藥湯의 結實보다 크게 結實하여 大實痛이라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大實痛은 腹滿時痛의 연장선 상에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부위가 腹部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吉益東洞의 《方極》에서는 “桂枝加芍藥湯證이면서 停滯가 있는 것을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였으며 村井大年은 “桂枝加芍藥湯證이면서 大實痛한 경우를 다스린다<sup>15)</sup>.”라고 하여 표현의 차이가 있었다. 大實痛에 대해 《類聚方廣義解說》에서 “大便이 굳어져 막히고 아픈 것<sup>16)</sup>”이라 설명하고 있으므로 有停滯者의 의미도 이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으나 有停滯者에는 痛의 의미는 없으므로 吉益東洞의 處方觀點에서는 桂枝加大黃湯에서 拘攣과 大實한 停滯만 확인이 되면 굳이 大實痛이 없더라도 桂枝加大黃湯을 처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毒이 熾盛하여 大實痛하고 大滿而痛하여 大黃 3兩을 가해 이를 攻下시킨다고 하였는데 桂枝加大黃湯이 桂枝加芍藥湯에 비해 大實하므로 腹滿 역시도 大滿하면서 大實痛함을 언급하였다.

### 4) 枳實芍藥散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는 枳實芍藥散의 ‘腹痛煩滿’을 芍藥의 結實而拘攣과 관련된 旁治證으로 보았다. 《類聚方》에서는 이 處方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다.

“産後. 腹痛. 煩滿不得臥<sup>12)</sup>.”

“師曰. 産婦腹痛. 法當以枳實芍藥散. 假令

不愈者。此爲腹中有乾血著臍下。宜下瘀血湯主之。亦主經水不利<sup>12)</sup>。”

《方極》에서는 “腹滿拘攣하고 혹 痛症이 있는 경우를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여 《類聚方》條文의 腹痛煩滿을 枳實芍藥散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腹滿拘攣의 腹證이 있어야 됨을 언급하였다.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芍藥은 모든 痛症을 다스리므로 腹痛 역시도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方極》에서는 腹痛을 或證으로 보고 있으며, 腹滿拘攣의 腹證 情況만 있으면 處方 가능하므로 《類聚方議》에서 말하고 있는 腹痛도 腹滿拘攣이 있는 情況에서의 腹痛임을 알 수 있다.

### 5) 排膿散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이 處方은 證이 빠져있다.”라고 하였으며 《類聚方》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였다. 吉益東洞은 《類聚方》<sup>12)</sup>에서 瘡癰이 있고 胸腹拘滿한 경우에 排膿散을 쓴다고 하였다.

《方極》에서는 “治瘡家。胸腹拘滿。若吐粘痰。或便膿血者<sup>11)</sup>.”라고 하여 《類聚方》에 비해 排膿散의 證을 좀 더 열거하였다.

《類聚方》과 《方極》에서 공통으로 瘡과 胸腹拘滿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排膿散이 胸腹拘滿의 腹證이 있으면서 外證의 瘡癰이 있는 경우를 다스리는 處方임을 알 수 있다.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이 處方은 金匱要略 瘡瘍編에 있는 處方으로 處方の 證이 없다고 하였으며 胸腹拘滿의 證에서 芍藥이 拘의 腹證을 다스리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6) 芍藥甘草湯

吉益東洞은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芍藥甘草湯의 ‘脚攣急’을 芍藥과 관련된 證으로 보았다. 《類聚方》에서는 이 處方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다.

“傷寒。脈浮。自汗出。小便數。心煩。微惡寒。脚攣急。反與桂枝湯。欲攻其表。此誤也。得之便厥。咽中乾。煩躁。吐逆者。作甘草乾薑湯與之。以復其陽。若厥愈足溫者。更作芍藥甘草湯與之。其脚即伸。若胃氣不和。識語者。少與[調胃承氣]湯。若重發汗。復加燒鍼者。四逆湯主之<sup>12)</sup>。”

《方極》에서는 脚攣急을 다스린다고 하지 않고 “拘攣急迫을 다스린다<sup>11)</sup>.”고 하였다. 이는 芍藥甘草湯의 湯證이 脚攣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身體 어느 부위에서나 拘攣急迫의 情況이 있으면 芍藥甘草湯을 處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類聚方議》<sup>14)</sup>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類聚方議》에서는 芍藥甘草湯이 脚攣急 뿐만 아니라 腹痛拘急, 一身手足拘攣強急之證을 모두 主한다고 하였다.

《類聚方廣義解說》에서는 芍藥甘草湯의 《方極》條文에 대하여 “芍藥甘草湯은 근육이 굳어져 아프고 혹은 경련하며, 그 증상이 심하고 매우 괴롭게 치받는 상태인 이를 다스린다<sup>16)</sup>.”라고 하여 芍藥甘草湯이 全身의 拘攣急迫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解說하였다. 또한 拘攣에 대해서는 “근육이 굳어지며 경련이 있는 것. 근육이 굳어진 상태로 심한 동통을 동반하는 것<sup>16)</sup>”이라 하여 拘攣의 범주를 筋肉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尾臺裕堂은 芍藥甘草湯에 대해 “治腹中攣急而痛者。小兒夜啼不止。腹中攣急甚者。亦有奇效<sup>16)</sup>.”라고 頭註하였다.

尾臺裕堂은 芍藥甘草湯이 腹中攣急而痛과 小兒夜啼에 奇效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藤平建은 腹直筋을 언급하면서 “이 처방은 복직근이 불거지며 아픈 것을 다스리지만 소아가 밤에 울어 멈추지 않고 복근의 경련이 심한

경우에도 또한 특효가 있다<sup>16)</sup>.”고 해설하였다.

### 7) 桂枝加芍藥生薑人蔘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는 桂枝加芍藥生薑人蔘新加湯의 ‘身疼痛’을 芍藥의 結實而拘攣과 관련된 旁治證으로 보았다. 身疼痛이 언급된 《類聚方》 條文은 다음과 같다.

“發汗後. 身疼痛. 脈沈遲者<sup>12)</sup>.”

“爲則按. 當有心下痞硬. 或拘急. 或嘔證<sup>12)</sup>.”

《類聚方》 條文의 爲則按에서는 拘急에 대해 언급하였고, 《方極》에서는 “桂枝湯證이 있으면서 心下痞硬이 있고, 혹 拘攣이나 嘔證이 있는 경우를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였다. 《類聚方》 條文과 《方極》 모두에서 或拘急, 或拘攣이라 하여 拘急과 拘攣을 或證으로 묶어 놓았다. 대신 《類聚方》 條文의 爲則按에서는 당연히 心下痞硬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方極》에서도 心下痞硬은 必證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吉益東洞의 處方觀點에서 볼 때, 桂枝湯證이 있으면서 心下痞硬이 있는 경우엔 굳이 拘攣이나 拘急의 證이 확인되지 않아도 桂枝加芍藥生薑人蔘新加湯을 처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桂枝加芍藥生薑人蔘新加湯에 대해 身體疼痛 뿐만 아니라 腹痛이 겸한 경우도 治療할 수 있고, 拘急이 劇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 8) 芎歸膠艾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는 芎歸膠艾湯의 ‘腹中痛’을 芍藥의 結實而拘攣과 관련된 旁治證으로 인용하였다. 芎歸膠艾湯과 관련하여 腹中痛이 언급된 《類聚方》 條文은 다음과 같다.

“師曰. 婦人有漏下者. 有半產後. 因續下血都不絕者. 有妊娠下血者. 假令妊娠腹中痛. 爲

胞阻.<sup>12)</sup>”

《類聚方廣義解說》에서는 胞阻에 대해 “妊娠時 子宮 內에서 무엇이 막고 있는 상태, 또한 임신 중에 腹痛이 있고, 子宮出血이 있는 것을 말한다<sup>16)</sup>.”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尾臺榕堂은 芎歸膠艾湯에 대해 “血痢가 멎지 않고 腹滿熱實症이 없고 오직 腹中攣痛하며 唇舌乾燥하는 이는 이 處方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藤平健은 이 條文에 대해 “이 條文은 마땅히 四段으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漏下에서, 半產後 續下血不絕에서, 妊娠下血에서, 妊娠腹中痛에서이다<sup>16)</sup>.”라고 하여 네 가지 경우 모두 芎歸膠艾湯의 湯證이라 解說하였다.

《方極》에서는 漏下, 腹中痛을 다스린다고<sup>11)</sup> 하였고, 《類聚方議》에서는 吐血下血 및 제반 血證과 腹中痛을 다스린다고<sup>14)</sup> 하였다.

### 9) 芍藥甘草附子湯

《藥徵》의 芍藥部 考徵에서는 芍藥의 結實而拘攣과 관련된 증거가 되는 문장이 없다고 하였고, 互考에서는 “芍藥甘草附子湯은 條文에서 다만 惡寒의 證을 거론하였는데, 이는 附子の 主治이지 芍藥과 甘草의 主治가 아니다. 甘草를 써서 毒의 急迫을 治療하고 芍藥을 써서 拘攣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拘攣急迫하면서 惡寒한 경우에 이 湯으로 主한다<sup>6)</sup>.”라고 하여 芍藥의 拘攣에 대해 언급하였다.

《類聚方》에서 芍藥甘草附子湯과 관련된 條文은 다음과 같다.

“發汗. 病不解. 反惡寒者. 虛故也.<sup>12)</sup>”

“爲則按. 芍藥甘草湯證. 而惡寒者主之<sup>12)</sup>.”

《類聚方》의 爲則按이하의 문장과 《方極》의 芍藥甘草附子湯 條文을 보면 “芍藥甘草湯證이면서 惡寒한 경우를 다스린다<sup>11,12)</sup>.”고



하였다.

《類聚方廣義解說》에서 尾臺榕堂은 芍藥甘草附子湯에 대해 “痼毒沈滯하고 四肢攣急하며 屈伸하기 어렵거나 혹은 骨節疼痛하고 寒冷癢痺하는 것을 다스린다. 七寶承氣丸이나 十幹承氣丸을 兼用한다. 이 處方에 大黃을 가해서 芍藥甘草附子大黃湯이라고 이름하고 寒疝에서 腹中拘急하고 惡寒이 심하며 腰脚攣痛하고 牽丸革卵腫하며 二便이 통하지 않는 것을 다스린다. 奇效가 있다<sup>16)</sup>.”고 頭註를 달았다.

### 10) 小青龍湯

《藥徵》<sup>9)</sup>의 芍藥部 考徵에서는 小青龍湯의 ‘咳逆’을 芍藥과 관련된 旁治證으로 인용하였다. 《類聚方》에서는 이 處方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다.

“傷寒. 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 發熱而咳. 或渴. 或利. 或噎. 或小便不利. 小腹滿. 或喘者<sup>12)</sup>.”

“傷寒. 心下有水氣. 咳而微喘. 發熱不渴. [服湯已渴者. 此寒去欲解也.]<sup>12)</sup>”

“病溢飲者. 當發其汗. 大青龍湯主之. 小青龍湯亦主之<sup>12)</sup>.”

“咳逆倚息不得臥<sup>12)</sup>.”

“婦人. 吐涎沫. 醫反下之. 心下即痞. 當先治其吐涎沫. 小青龍湯主之. 涎沫止. 乃治痞. 瀉心湯主之<sup>12)</sup>.”

《方極》에서 小青龍湯은 “咳喘, 上衝, 頭痛, 發熱, 惡風, 或 乾嘔한 경우를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였다. 《類聚方》에서는 咳逆이라 하였고, 《方極》에서는 咳喘이라 하였다. 咳逆, 咳喘과 芍藥의 結實而拘攣과의 관계에 대한 단서는 《類聚方議》에서 찾아볼 수 있다. 《類聚方議》에서는 “芍藥은 倚息拘攣을 다스린다<sup>14)</sup>.”라고 하였다. 《類聚方廣義解說》에서는 倚息에 대해 “倚息이라는 것은 肩息 즉, 입

을 벌리고 어깨를 들어 올리며 호흡을 돕는 상태를 말한다<sup>16)</sup>.”라고 해설하였고, 뒤이어 藤平建은 “倚息은 물체에 기대어 숨을 쉬는 모양.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 나타난다<sup>16)</sup>.”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 11) 大柴胡湯

《藥徵》<sup>9)</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大柴胡湯의 ‘心下滿痛’, ‘嘔吐而下利’를 芍藥의 結實而拘攣과 관련된 증거로 인용하였다. 《類聚方》에서는 이 處方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고, 爲則按으로 시작되는 吉益東洞의 설명이 있었다.

“太陽病. 過經十餘日. 反二三下之. 後四五日. 柴胡證仍在者. 先與小柴胡湯. 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者. 爲未解也. 與大柴胡湯下之則愈<sup>12)</sup>.”

“傷寒. 發熱. 汗出不解. 心下痞硬. 嘔吐而下利者<sup>12)</sup>.”

“按之心下滿痛者. 此爲實也. 當下之<sup>12)</sup>.”

“爲則按. 小柴胡湯證. 而胸腹拘攣. 可下者主之<sup>12)</sup>.”

《類聚方》의 爲則按에서는 胸腹拘攣이라 하였고, 《方極》에서는 大柴胡湯에 대해 “治小柴胡湯證. 而心下不痞硬. 腹滿拘攣. 或嘔者<sup>11)</sup>.”라 하여 腹滿拘攣을 언급하였다. 이는 《類聚方》과 《方極》에서 공통으로 芍藥의 結實而拘攣이 腹證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心下緊急한 경우엔 반드시 腹滿이 있고 腹滿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拘攣의 證이 있어야 하며 이는 厚朴이 다스리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고, 芍藥은 拘攣과 拘急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類聚方廣義解說》에서 尾臺榕堂은 “心下急은 拘急이다<sup>16)</sup>.”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藤平建은 “心下急은 拘攣의 의미로, 拘急이 한

층 더 심해진 것이다. 명치 주변이 심하게 딱딱하게 굳어지며 아프다는 뜻이다<sup>16)</sup>.”라고 해설하였다.

大柴胡湯의 《類聚方》條文에 胸腹拘攣이라 하였고, 《方極》에서는 腹滿拘攣이라 하였고, 《類聚方議》에서는 “반드시 拘攣의 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고 《類聚方廣義解說》에서는 “心下急은 拘攣의 의미로 拘急이 한층 더 심해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大柴胡湯의 《類聚方》條文에 있는 心下滿痛과 嘔吐而下利의 旁治證은 腹部에서 芍藥의 結實而拘攣의 證이 확인되어야 大柴胡湯으로 다스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附子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附子湯의 ‘身體痛’을 芍藥의 旁治證으로 인용하였다. 《類聚方》에서는 이 處方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다.

“少陰病. 身體痛. 手足寒. 骨節痛. 脈沈者<sup>12)</sup>.”

《類聚方》條文에서는 身體痛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方極》<sup>11)</sup>條文에서는 身體攣痛이라 하여 附子湯의 身體痛이 芍藥의 結實而拘攣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였으며 若腹痛이라 하여 附子湯을 處方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증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芍藥이 身體痛을 佐한다”라고 하여 芍藥과 身體痛이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類聚方廣義解說》에서 尾臺榕堂은 附子湯에 대해 “水病으로 遍身腫滿하고 小便이 不利하며 心下痞硬하고 下利腹痛하며 身體痛하거나, 癱痺하거나, 惡風寒하는 이는 이 處方이 마땅하다<sup>16)</sup>.”라고 頭註를 달았다. 身體攣痛에 대해서는 몸의 근육 여기저기가 굳고 아픈 것

<sup>16)</sup>이라 하였다. 藤平建은 藤平安이라 하여 附子湯에 대해 “복부는 일반적으로 연하지만 때로는 복근의 이상긴장과 동통이 있다<sup>16)</sup>.”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놓았다.

《藥徵》의 人蔘部 互考에서는 “附子湯證不具也. 此方之與眞武湯. 獨差一味. 而其於方意也. 大有逕庭. 附子湯亦附君藥. 而主身體疼痛. 或小便不利. 或心下痞硬者. 眞武湯茯苓芍藥君藥. 而主肉瞶筋惕. 拘攣嘔逆. 四肢沈重疼痛者<sup>8)</sup>.”라며 附子湯과 眞武湯에 대해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다.

《藥徵》의 人蔘部 互考에서는 附子湯이 身體疼痛을 주로 다스린다고 하였고 《類聚方》에서는 身體痛이라 하였고, 《方極》에서는 身體攣痛이라 하였다. 《方極》에서는 若腹痛이라 하여 腹痛을 若證으로 묶어두었고, 《類聚方廣義解說》의 藤平按에서는 “때로는 腹筋의 이상긴장과 동통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附子湯은 外證인 身體攣痛을 주로 治療하며 附子湯에서의 芍藥의 結實而拘攣은 腹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腹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眞武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眞武湯의 ‘腹痛’, ‘沈重疼痛’, ‘自下利’, ‘咳’를 芍藥의 旁治證으로 인용하였다. 《類聚方》에서는 이 處方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다.

“太陽病. 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瞶動. 振振欲擗地者<sup>12)</sup>.”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沈重疼痛. 自下利者. 此爲有水氣. 其人或咳.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sup>12)</sup>.”

《方極》<sup>11)</sup>에서는 沈重疼痛과 咳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腹痛에 대해서도 若拘攣者라

하여 若證으로 묶어놓았다.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芍藥은 疼痛을 다스린다고 하였고, 芍藥없이 朮과 附子만으로는 腹痛과 一身疼痛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였다.

《類聚方廣義解說》에서 尾臺榕堂은 眞武湯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頭註를 달았다. “治痿瘳病, 腹拘攣, 脚冷不仁, 小便不利, 或不禁者<sup>16)</sup>.”

“腰疼, 腹痛, 惡寒, 下利日數行, 夜間尤甚者, 稱之疝利, 宜此方. 又久痢, 見浮腫, 或咳或嘔者, 亦良<sup>16)</sup>.”

“產後下利, 腸鳴腹痛, 小便不利, 支體酸軟. 或麻痺, 有水氣, 惡寒發熱, 咳嗽不止, 漸成勞狀者, 尤治難治. 宜此方<sup>16)</sup>.”

尾臺榕堂은 세 가지 頭註에서 腹拘攣과 腹痛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藤平建은 眞武湯에 대해 “腹部는 일반적으로 軟하지만 때때로 복근의 이상긴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下痢, 腹痛, 利尿異常, 動悸, 眩氣症, 身體疼重, 惡寒 등이 나타날 수 있다<sup>16)</sup>.”라고 언급하였다.

《藥徵》의 人蔘部 互考에서는 眞武湯은 茯苓, 芍藥이 君藥이므로 肉瞶筋惕, 拘攣嘔逆, 四肢沈重疼痛한 경우를 주로 治療한다고 하였지만, 眞武湯의 《方極》條文은 心中躁, 身瞶動, 振振欲擗地, 小便不利를 주로 다스린다고 하였고, 嘔證은 或證으로 拘攣은 若證으로 묶어놓았다. 眞武湯과 附子湯의 《方極》條文을 비교해보면 眞武湯은 若拘攣이라 하였고, 附子湯은 若腹痛이라 하였다. 이는 附子湯의 腹痛은 芍藥의 結實而拘攣의 腹證이 없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하고, 반면에 眞武湯의 腹痛에서는 拘攣의 腹證이 함께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며, 眞武湯에서의 拘攣이 芍藥의 結實而拘攣의 腹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腹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若拘攣이라 하여 若證으로 묶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 14) 桂枝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桂枝湯의 ‘頭痛’, ‘身疼痛’을 芍藥의 旁治證으로 인용하였다. 《類聚方》에서는 이 處方과 관련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다.

“太陽病. 頭痛發熱. 汗出惡風者<sup>12)</sup>.”

“傷寒. 不大便六七日. 頭痛有熱者. 與[承氣湯]. 其小便清者. 知不在裏. 仍在表也. 當須發汗. 若頭痛者. 必衄<sup>12)</sup>.”

“傷寒. 醫下之. 續得下利. 清穀不止. 身疼痛者. 急當救裏. 後身疼痛. 清便自調者. 急當救表. 救裏]宜四逆湯. 救表]宜桂枝湯<sup>12)</sup>.”

“下利. 腹脹滿. 身體疼痛者. 先溫其裏. 乃攻其表. 溫裏四逆湯. 攻表桂枝湯<sup>12)</sup>.”

“吐利止. 而身痛不休者. 當消食和解其外.<sup>12)</sup>”

“產後中風. 續之數十日不解. 頭微痛. 惡寒. 時時有熱. 心下悶. 乾嘔汗出. 雖久陽旦證續在耳<sup>12)</sup>.”

《類聚方》에서는 頭痛, 頭微痛, 身疼痛, 身體疼痛이라 하여 頭痛, 身疼痛과 관련된 條文이 언급되어 있었다.

《方極》에서는 “桂枝湯은 上衝, 頭痛, 發熱, 汗出, 惡風한 경우를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였다. 《方極》에서는 《類聚方》과 달리 身疼痛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 단지 頭痛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었다. 이는 굳이 身疼痛이 확인되지 않아도 《方極》條文의 證만 확인이 되면 桂枝湯을 處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方機》<sup>17)</sup> 桂枝湯 條에서는 “頭痛이라는 한 證狀만 있어도 桂枝湯을 투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類聚方議》<sup>14)</sup> 桂枝湯 條에서는 芍藥에 대해 病毒의 結實과 拘急, 攣急, 諸痛 등을 主治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모두 病毒의 結實로 인

한 것이라 하였다.

《類聚方廣義解說》에서 尾臺榕堂은 “桂枝湯은 上衝, 頭痛, 發熱, 汗出, 惡風, 腹拘攣한 경우를 다스린다<sup>16)</sup>.”라고 하여 기존 《方極》과는 달리 腹拘攣의 證을 추가하였고 용어해설 편에서 腹拘攣을 “복근의 이상긴장<sup>16)</sup>”이라 설명하였다.

《類聚方》에서는 頭痛과 頭微痛, 身疼痛과 身體疼痛에 대해 언급하였고, 《方極》에서는 桂枝湯이 頭痛을 다스린다고 하였으며, 《方機》에서는 頭痛만 있어도 桂枝湯을 處方할 수 있다고 하였고, 《類聚方議》에서는 拘急, 攣急, 諸痛 등이 病毒의 結實로 인한 것이라 하였으며, 《類聚方廣義解說》에서는 桂枝湯에 腹拘攣의 腹證이 나타남을 서술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病毒이 結實해서 腹拘攣의 腹證을 나타내면 芍藥으로 拘急, 攣急, 諸痛을 다스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腹證에 結實而 拘攣이 확인된 경우엔 桂枝湯의 《類聚方》條文에 언급된 頭痛과 身疼痛도 芍藥으로 다스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方極》條文에 頭痛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身疼痛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頭痛의 一證만으로도 桂枝湯을 處方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15) 烏頭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烏頭湯의 ‘歷節不可屈伸’, ‘疼痛’, ‘拘急’을 芍藥의 結實而 拘攣과 관련된 證으로 인용하였다. 《類聚方》에서는 이 處方과 관계된 條文에 다음과 같이 勾乙을 가하였다.

“病. 歷節. 不可屈伸. 疼痛<sup>12)</sup>.”

“治脚氣疼痛. 不可屈伸<sup>12)</sup>.”

“寒疝. 腹中絞痛. 賊風入攻五臟. 拘急不得轉側. 發作有時. 使人陰縮. 手足厥冷<sup>12)</sup>.”

《類聚方》에서는 歷節不可屈伸, 疼痛, 拘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拘急이 언급된 《類聚方》條文에서 勾乙한 부분을 빼면 “腹中絞痛하고 拘急하여 몸을 돌리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烏頭湯의 《方極》<sup>11)</sup>條文에서는 骨節疼痛하고 不可屈伸하는 證을 다스린다고 하였고 自汗이 있는 경우 혹은 盜汗이 있는 경우나 腹絞痛이 있는 경우도 다스린다고 하였다. 《方極》條文에서는 ‘歷節不可屈伸’, ‘疼痛’을 ‘骨節疼痛, 不可屈伸’이라 하였고, 拘急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腹絞痛을 若證으로 묶어놓았다.

烏頭湯과 관련된 《方機》<sup>17)</sup>條文에서는 歷節不可屈伸, 疼痛, 拘急외에도 脚攣急, 少腹攣急 등의 표현이 있었다.

《類聚方》에서는 歷節不可屈伸, 疼痛, 拘急에 대해 언급하였고, 《方極》에서는 骨節疼痛, 不可屈伸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腹中絞痛을 若證으로 묶어놓았고 拘急에 대한 표현은 없었으며 《方機》條文에서는 脚攣急과 少腹攣急의 證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疼痛과 不可屈伸이 脚攣急과 관계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腹中絞痛이 拘急, 少腹攣急과 관련됨을 짐작할 수 있다. 脚攣急과 拘急은 芍藥의 結實而 拘攣에서 나타나는 證狀이므로 烏頭湯의 歷節不可屈伸, 疼痛, 拘急의 外證은 芍藥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 16) 黃芪桂枝五物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身體不仁’을 黃芪桂枝五物湯에 있어서 芍藥의 旁治證으로 보았다. 《類聚方》에서는 黃芪桂枝五物湯의 條文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血痺. 陰陽俱微. 寸口關上微. 尺中小緊. 外證身體不仁. 如風痺狀.<sup>12)</sup>”

“爲則按. 桂枝加黃芪湯證. 而嘔. 無急迫者<sup>12)</sup>.”

이에 대해 《類聚方廣義解說》에서는 血痺, 風痺와 관련하여 “身體가 痲痺하고 피부가 가려운 것 같은 감각을 느끼는 것은 血痺라고 한다. 신체가 痲痺되어 痛痒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風痺라고 한다. 風痺는 피부가 심하게 痲痺되어 통증과 가려움이 지각되지 않는 것이다.”<sup>16)</sup>라고 해설하고 있다.

《方極》에서 黃芪桂枝五物湯은 “桂枝湯證이면서 嘔하고 身體痲痺하며 急迫하지 않은 경우를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였는데, 《方極》에서는 《藥徵》과 《類聚方》의 身體不仁의 표현 대신 身體痲痺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類聚方》에서는 “桂枝加黃芪湯證이면서 嘔하고 急迫이 없는 경우”라고 하였고, 《方極》에서는 “桂枝湯證이면서 嘔하고 身體痲痺하며 急迫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類聚方議》에서는 “선사께서 일찍이 이 處方은 桂枝湯證으로 嘔證과 身體不仁이 있고 急迫하지 않은 경우를 다스린다고 하셨다. 지금 여기서는 桂枝加黃芪湯證으로 嘔證이 있고 急迫하지 않은 경우를 다스린다고 하셨다. 身體不仁은 黃芪가 다스리기 때문에 方極에 桂枝湯證이라 했고, 여기서는 桂枝加黃芪湯證이라고 했다<sup>14)</sup>.”라고 언급하였다.

身體不仁은 芍藥의 旁治證이자 黃芪의 旁治證이므로 黃芪桂枝五物湯의 身體不仁의 경우엔 芍藥과 黃芪의 공동 旁治證이 된다<sup>6)</sup>. 그러므로 黃芪桂枝五物湯의 身體不仁은 芍藥의 結實而拘攣의 證이 있고, 黃芪의 肌表之水의 證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7) 黃芩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自下利’를 黃芩湯에 있어서 芍藥의 旁治證으로 보았다. 《類聚方》에서는 黃芩湯의 條文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太陽與少陽合病.] 自下利者. 與黃芩湯. 若嘔者. 黃芩加半夏生薑湯主之<sup>12)</sup>.”

“爲則按. 當有心下痞. 腹強急證<sup>12)</sup>.”

위 條文과 관련하여 《類聚方議》<sup>14)</sup>에서는 併病, 合病은 疾醫之道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였고, 急한 證이 있으면 急한 證을 먼저 治療해야 된다고 하였다.

黃芩湯의 《類聚方》 條文에서는 “마땅히 心下痞와 腹強急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고, 《方極》에서는 “下利와 腹拘急證을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였으므로, 이 湯에서의 下利證은 腹部에 芍藥의 結實而拘攣의 證이 있어야 黃芩湯으로 다스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8) 柴胡桂枝湯

《藥徵》<sup>6)</sup>의 芍藥部 考徵에서 ‘肢節煩疼’을 柴胡桂枝湯에 있어서 芍藥과 관련된 證으로 보았다. 《類聚方》에서는 柴胡桂枝湯의 條文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傷寒. 六七日. 發熱. 微寒. 支節煩疼. 微嘔. 心下支結. 外證未去者.<sup>12)</sup>”

“發汗多. 亡陽. 讖語者. 不可下. 與柴胡桂枝湯. 和其榮衛以通津液後自愈.<sup>12)</sup>”

“治心腹卒痛者<sup>11)</sup>.”

柴胡桂枝湯의 《類聚方》 條文에 “心腹卒痛을 다스린다<sup>12)</sup>.”라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藥徵》 芍藥部 考徵에서는 柴胡桂枝湯 《類聚方》 條文의 支節煩疼만을 芍藥과 관련된 證으로 삼고 있었다. 吉益東洞의 觀點에서는 분명히 心腹卒痛과 芍藥의 旁治證 중에 하나인 腹痛이 서로 無關하였을 것이며 그 배경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方極》을 보면 “柴胡桂枝湯은 小柴胡湯과 桂枝湯의 두 方證을 모두 다스린다<sup>11)</sup>.”라고 하였으므로, 《類聚方》 條文을 중심으로 小柴胡湯과 桂枝湯에서 支節煩疼 및 腹痛과 관련된



Fig. 1. 《腹診考》<sup>18)</sup>에서 拘攣의 腹診圖

條文을 살펴보았다. 《類聚方》條文의 小柴胡湯條에서는 腹痛과 관련하여 腹中痛, 腹中急痛, 腹痛而嘔의 언급이 있었고, 桂枝湯條에서는 身疼痛者, 身體疼痛者, 身痛不休者의 표현이 있었다. 《類聚方》條文을 중심으로 支節煩疼과 腹痛을 살펴보면 支節煩疼은 桂枝湯과 관련된 證이며 腹痛은 小柴胡湯과 관련된 證임을 알 수 있으며 小柴胡湯에는 芍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朴通은 芍藥의 旁治證과 관련된 腹痛이 아님을 알 수 있다.

《類聚方廣義解說》에서는 柴胡桂枝湯의 肢節煩疼에 대해 “手足의 關節이 번조하고 아픈 것<sup>16)</sup>”이라 하였고, 柴胡桂枝湯의 方極에 대해서 해설하기를 “柴胡桂枝湯은 小柴胡湯에서 肋骨弓下의 充滿感과 저항인통, 복직근의 긴장, 명치 주변이 메이고 단단해지는 등의 證과, 桂枝湯證에서 頭痛, 發熱, 微惡寒, 筋肉痛 등 두 가지 處方의 證이 合併된 病症을 나타내는 이를 다스린다<sup>16)</sup>.”고 하였다.

### 3. 芍藥의 結實而拘攣과 腹證

吉益東洞의 《藥徵》<sup>6)</sup>에서는 結實이라는 용어가 총 12회 사용되었다. 《藥徵》人蔘部의 경우엔 “人蔘은 心下에 結實이 있는 病을 主治한다.”, “心下에 結實의 毒이 있다.”라고

하여 結實이 腹部에 위치함을 언급하였다.

《藥徵》<sup>6)</sup> 甘草部 互考에서는 小腹急結을 結實의 하나로 보았다.

《藥徵》<sup>6)</sup> 朮部 互考에서는 桂枝去芍藥湯에 대해 “頭痛, 發熱, 惡風, 有汗 등의 證이 있으면서 腹部에 結實이 없는 경우를 다스린다.”라고 하였다.

《藥徵》<sup>6)</sup> 芍藥部의 경우 結實을 4회 언급하였으며 結實과 腹證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언급한 곳은 없었다. 다만 考徵에서 “하나같이 모두 結實의 所致이다. 소위 痛이라는 것은 拘急한 것이다. 桂枝加芍藥湯, 少建中湯, 桂枝加大黃湯은 모두 芍藥이 主藥이라서 그 證이 이와 같다. 이를 根據로 보면 芍藥이 結實而拘攣을 다스리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였는데, 《藥徵》 芍藥部 考徵에서 桂枝加芍藥湯은 腹滿時痛이라 하였고 少建中湯은 腹中急痛이라 하였고, 桂枝加大黃湯은 大實痛이라 하였으며 이는 모두 腹部에서 나타나는 證이므로 結實而拘攣이 腹證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芍藥部 互考에서는 “少建中湯이 芍藥甘草湯에서 나왔기 때문에 腹拘急하면서 痛한 경우를 다스린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芍藥甘草湯도 腹拘急하면서 痛한 경우를 다스린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芍藥甘草湯이 腹拘急하면

서 痛한 경우를 다스리기 때문에 《藥徵》 芍藥部 辨誤에서 언급하고 있는 結實而拘攣도 腹證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藥徵》<sup>6)</sup> 枳實部 互考에서 “仲景 선생은 承氣湯을 쓸 때 大實大滿하면서 腹部에 結毒이 있는 경우에 大承氣湯을 썼는데, 이 때 枳實을 5매 사용했다. 오로지 腹滿不通이 있는 경우엔 小承氣湯을 썼는데, 이 때 枳實을 3매 썼다. 枳實은 結實을 주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結毒在腹이라 하여 結實이 복부에 위치함을 언급하였다.

《吉益東洞大全集》에 수록된 腹診書 중 《長沙腹診考》<sup>13)</sup>와 《腹診考》<sup>18)</sup>에서는 芍藥의 拘攣을 분명한 腹證으로 언급하였고, 특히 《腹診考》<sup>18)</sup>에서는 구체적인 拘攣의 腹診圖가(Fig. 1.) 기재되어 있었다.

《長沙腹診考》에 따르면 “腹中을 診察함에 手頭에 부딪히고 걸리고 리하고 당기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拘攣이다.”라고 하여 拘攣의 腹診에 대해 언급하였고, “《東洞遺書》에 拘急은 拘攣인 것이고, 攣은 리하고 당기는 것이며, 急은 急迫이다.”라고 하여 拘急과 拘攣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었다.

“腹中を診するに手頭にあたりて、かかわり引きつるものあり。最乃ち拘攣なり<sup>13)</sup>。”

“《東洞遺書》に拘急は拘攣のこと、攣は引きつり、急は急迫なり<sup>13)</sup>。”

《腹診考》에서는 “腹을 按함에 筋數條가 리하는듯 땅기는 것이 拘攣이다.”라고 하여 拘攣의 腹診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그와 함께 拘攣의 腹診圖가 기재되어 있었다. 腹診圖에서 拘攣의 그림은 양능골하연에서 少腹으로 길게 이어진 그림과, 心下部에서 臍上으로 이어진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Fig. 1.)

“腹を按ずるに筋數條引きたる如き者、拘攣なり<sup>18)</sup>。”

#### IV. 考 察

吉益東洞은 結實而拘攣에 대하여 《建殊錄》에서는 結實과 拘攣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腹皮攣急, 腰背攣痛, 腹中攣急, 腰攣急이라 하여 攣急과 攣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方極》에서는 結實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拘攣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고, 拘攣과 관련된 拘急, 攣痛, 拘滿, 拘痛의 표현이 혼용되었다. 《類聚方》에서는 拘攣이 1회, 拘急이 4회, 強急이 1회, 拘滿이 1회 사용되었으며, 역시 拘攣, 拘急, 強急, 拘滿의 용어가 혼용되었다. 《藥徵》의 경우 芍藥部 문두에 “芍藥은 結實而拘攣을 主治한다<sup>6)</sup>.”라고 하였지만, 실제 《藥徵》의 芍藥部에서는 拘攣과 拘急의 표현이 모두 사용되었고, 다른 저서와는 달리 芍藥과 관련된 結實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였다. 《藥徵》 大棗部를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張仲景이 大棗, 甘草, 芍藥을 사용하는 그 證候가 서로 많이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방법을 알려면 스스로 터득하는 수밖에 없다<sup>6)</sup>.”라고 하여 大棗와 甘草와 芍藥의 쓰임이 서로 비슷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였다. 芍藥이 結實而拘攣을 主治한다고 하면서도 拘急이나 攣急 등의 표현이 혼용되는 이유 역시도 이러한 大棗, 甘草, 芍藥의 大同小異함에 그 연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吉益東洞은 芍藥 단독의 主治는 拘攣이라 하였고, 芍藥과 甘草, 또는 芍藥과 大棗, 또는 芍藥과 甘草와 大棗가 공통으로 만들어내는 主治는 拘急이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었다. 《長沙腹診考》를 보면 “《東洞遺書》에 拘急은 拘攣인 것이고, 攣은 리하고 땅기는 것이며, 急은 急迫이다<sup>13)</sup>.”라고 하여, 결국 拘急이라는 것은 拘攣이고, 急이라는 것은 急迫이며, 吉益東洞에게 있어 拘急은

拘攣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었다.

《藥徵》의 芍藥部 考徵에 언급된 18개 처방들 중 9개 처방인 桂枝加芍藥湯, 少建中湯, 桂枝加大黃湯, 枳實芍藥散, 排膿散, 芍藥甘草湯, 芍藥甘草附子湯, 大柴胡湯, 黃芩湯의 경우엔, 結實而拘攣이 拘, 拘攣, 拘急, 強急의 형태로 腹部에 腹證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처방을 운용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살피고 확인해야 되는 腹證임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9개의 처방은 或證인 경우도 있었고, 若證인 경우도 있었으며 吉益東洞이 拘攣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처방도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吉益東洞과 관련된 저서에서 拘攣이 腹證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들도 있었다. 桂枝加芍藥生薑人參湯의 경우엔 《方極》에서 或拘攣이라 하여 或證으로 기술하였고, 眞武湯의 경우엔 若拘痛이라 하여 拘攣을 若證으로 묶어놓았다. 芍歸膠艾湯, 小青龍湯, 附子湯, 桂枝湯, 烏頭湯, 柴胡桂枝湯의 경우엔 吉益東洞과 관련된 저서에서 拘攣이 腹證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黃芪桂枝五物湯의 경우엔 結實而拘攣이 腹證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吉益東洞이 拘攣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처방들은 처방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外證이나 腹證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吉益東洞의 《藥徵》에서는 結實이라는 용어가 총 12회 사용되었으며, 人蔘部, 芍藥部, 枳實部에서 언급하고 있는 結實은 모두 腹證을 표현하고 있었다. 《吉益東洞大全集》에 수록된 腹診書 중 《長沙腹診考》와 《腹診考》에서는 芍藥의 拘攣을 분명한 腹證으로 언급하였고, 특히 《腹診考》의 腹診圖에서 拘攣의 그림은 양능골하연에서 少腹으로 길게 이어진 그림과, 心下部에서 臍上으로 이어진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藥徵》의 芍藥部 考徵에서 脚攣急은 芍藥甘草湯과 관련된 證으로 기술되었다. 《方極》에서는 脚攣急을 다스린다고 하지 않고 拘攣急迫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이는 芍藥甘草湯의 湯證이 脚攣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身體 어느 부위에서나 拘攣急迫의 情況이 있으면 芍藥甘草湯을 處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附子湯의 《方極》條文에서는 身體攣痛이라 하여 外證으로 드러난 身體攣痛과 芍藥의 結實而拘攣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였으며, 烏頭湯의 《類聚方》條文에서는 拘急不得轉側이라 하여 外證으로 드러난 拘急과 結實而拘攣과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拘攣이 腹證 뿐만 아니라, 外證으로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V. 結 論

吉益東洞의 《藥徵》과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芍藥이 主治하는 結實而拘攣에 대해 고찰한 결과 著者は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을 수 있었다.

1. 吉益東洞은 여러 서적에서 結實而拘攣을 拘攣, 拘急과 혼용하였으며 拘急은 拘攣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사료된다.
2. 《藥徵》의 芍藥部 考徵에 언급된 18개 처방의 분석을 통해 結實而拘攣이 腹證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藥徵》에서 結實은 모두 腹證을 표현하고 있으며, 《長沙腹診考》와 《腹診考》에서는 芍藥의 拘攣을 분명한 腹證으로 언급하였으므로 結實而拘攣은 腹證을 표현한 것으로 사료된다.
4. 腹證 뿐 아니라 外證으로 나타나는 拘攣도



芍藥이 主治하는 結實而拘攣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芍藥을 結實而拘攣의 腹證 뿐 아니라 拘攣이나 拘急의 外證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본 연구가 임상에서 芍藥과 관련된 처방의 운용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VI. 參考文獻

1. 大塚敬節. 吉益東洞の功績について. 廣島醫學. 1975;28(1):123-124.
2. 富士川游. 日本醫學史. 서울:법인문화사. 2006:364.
3. 鶴沖元逸 著. 曹晟 編著. 醫斷. 古醫道學會. 2005:6-7.
4. 大塚敬節. 漢方醫學. 大阪:創元社. 2004:67.
5. 부시원. 吉益東洞의 觀點에서 본 附子の 逐水作用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5.
6. 吉益東洞 著. 曹晟 編著. 藥徵. 古醫道學會. 2005: 21, 24, 32, 35-6, 39-40, 83-90, 108, 164, 177, 180.
7.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現代中韓辭典. 서울: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8:546, 551, 580-1, 712, 1000.
8. 吳澤炎, 黃秋耘, 劉葉秋. 辭源. 北京:商務印書館. 2006: 859, 1243, 1330, 2424.
9.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民衆書林. 1994: 365, 513, 540, 961-2.
10. 嚴恭敬 著. 曹晟 編著. 建殊錄. 古醫道學會. 2005: 2-10, 13-4, 16-22, 25, 29, 32-3, 36, 39, 47-8, 56.
11. 吉益東洞 著. 曹晟 編著. 方極. 古醫道學會. 2005: 2, 5-6, 18, 22-3, 26-7, 34, 36, 38.
12. 吉益東洞. 類聚方. 東洞大全. 吐鳳堂書店. 1918:243-332.
13. 小川新 校閱. 長沙腹診考. 吉益東洞大全集. たにぐち書店. 2001:532-534.
14. 村井大年 著. 古醫道學會 編著. 類聚方議. 古醫道學會. 2007;1:3, 169-70, 211-5, 2:5, 22-40, 50, 3:239, 4:204-205, 6:155-158, 7:63, 52-5, 8:52, 98, 104-5, 127.
15. 吉益東洞, 村井大年 著. 曹晟 編著. 方極刪定合本. 古醫道學會. 2006:4.
16. 藤平健 主講. 類聚方廣義解說. 서울:醫方出版社. 2007:23, 67, 123, 238, 304-5, 321, 448-50, 492-5, 497, 500, 675-6.
17. 乾省守業 筆記, 殿經文緯 校訂. 曹晟 編著. 方機. 古醫道學會. 2005:2-3, 63.
18. 小川新 校閱. 腹診考. 吉益東洞大全集. たにぐち書店. 2001:473-4.